

견실한 허웅·화려한 허훈...형제는 용감했다

허웅 평균13.69점·DB 선두경쟁의 키
허훈 평균14.94점·7.23AS 재치 만점

우승반지였던 문태중·태형 형제처럼
프로 첫 타이틀 함께 거머쥘지 관심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허웅(27·원주 DB)과 허훈(25·부산 KT) 형제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허웅은 화려함보다는 견실한 플레이를 앞세워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팀이 선두경쟁을 하는데 큰 힘이 됐다. DB는 서울 SK와 리그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허훈은 한 경기 9개 연속 3점슛 성공, KBL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한 경기 최다 어시스트(21개), 어시스트를 동반한 첫 20-20 달성,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으로 술한 화제를 뿌렸다. 정규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상도 거머쥐었다. 둘 모두 부상을 겪은 터라 전 경기 출장에는 실패했지만 큰 기복 없이 팀과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KBL리그가 중단되기 이전까지 허웅은 29경기에서 평균 25분여를 뛰며 13.69점·2.45리바운드·1.38어시스트를 올렸다. 허훈은 35경기에서 평균 31분여를 소화하며 14.94점·2.63리바운드·7.23어시스트를 쳤다.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동반 두 자릿수 득점은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역대 KBL리그를 보면 적지 않은 수의 형제 선수들이 존재했다. 지도자로 변신한 조상현(남자농구국가대표팀 코치)-동현(울산 현대모비스 코치), 이흥



2019~2020 시즌 KBL리그에서 허웅(위)·허훈 형제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원주 DB 허웅은 꾸준한 플레이로 소속팀의 선두 경쟁에 힘을 보였고, 부산 KT 허훈은 각종 기록을 몰론이고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뿌렸다. 이번 시즌처럼 꾸준하게 성장한다면 KBL리그 최고의 형제 선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포츠동아DB

섭-규섭(서울 삼성 코치), 박성배-성훈 형제가 있었다. 귀화선수로는 문태중-태영(서울 삼성), 이승준-동준 형제가 KBL리그에서 함께 뛰었다. 이승준-동준 형제는 최근에 3대3으로 무대를 옮겨 선

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형제 선수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족적을 남긴 것은 문태중-태영 형제다. 2009~2010 시즌 동생 문태영이 먼저 귀화현열선수로 한국 무대에 뛰어 들었

다. 다음 시즌에 문태중이 가세했다. 문태중은 당시만 해도 유럽무대에서 기량이 좋기로 정평이 났던 선수다. 일부 팀들이 외국인선수로 영입 시도를 했을 정도로 이틀값이 있었다. 둘은 한국 무대에 뛰어들자마자 빼어난 득점력을 과시했다. 처음으로 KBL에서 함께 뛰던 2010~2011 시즌 문태중은 평균 17.43점을 기록했고, 문태영은 평균 22.04점을 올렸다. 둘 모두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문태영은 현대모비스에서만 3개의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다. 유독 우승이 인연이 닿지 않았던 문태중은 2018~2019 시즌 현대모비스로 이적해 결국 우승트로피에 입맞춤했다. 그는 우승 반지를 손에 넣은 뒤 곧바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이미 여러 시즌을 소화하고 KBL리그를 떠난 다른 형제선수들과 달리 허웅과 허훈은 앞으로 함께 뛠 시간이 더 많다. 이번 시즌 포함해 함께 한 시간은 두 시즌에 불과하다. 선배 형제선수들과 비교하면 아직 이뤘던 게 많지 않지만 지금처럼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문태중-문태영 형제 못지않은 업적을 쌓을 수도 있다.

허웅은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전력을 가진 팀의 일원이다. 첫 우승반지 획득을 꿈꾼다. 허훈은 팀 성격이 중위권이지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손색이 없을 만큼의 기량을 선보였고, 의미 있는 기록도 남겼다. 리그 재개 이후 허웅과 허훈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프로데뷔 이후 처음으로 타이틀 하나씩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용석 기자 ttoyong@donga.com

대한체육회 상품화권자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

생활체육 733+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31일까지 대한체육회 공식 상품화권자를 모집한다.

공식 상품화권자로 선정된 업체는 팀코리아 엠블럼, 캐릭터 ‘달리’ 등 대한체육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캐릭터나 기념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캐릭터 라이선스업, 기타 상품화사업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등록된 입찰 공고를 통해 확인할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공개 입찰을 통해 미니멈 개런티, 러닝 로열티, 상품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소비자 보호정책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품화권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말까지 대한체육회 공식 상품화권자로 참여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V리그 외인 가빈·산체스 한국 떠난다



한국전력 가빈

한국도로공사 산체스

V리그 남녀부 최하위 팀의 외국인 선수가 나란히 한국을 떠난다. 한국전력 가빈과 한국도로공사 산체스가 13일 본국인 캐나다와 쿠바로 돌아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V리그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는 외국인 선수가 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전력은 11일 “리그 재개가 지연되고 있어 추후 캐나다 입국 제한 조치 등의 우려를 감안해 가빈을 13일 출국 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의 뜻이었다. 당초 가빈은 시즌 종료까지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구단은 선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기 이별을 결정했다. 이에 동의한 장병철 감독도 리그 재개 이후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워냈다.

일찍이 구단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던 산체스도 집으로 돌아간다. 구단과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13일 모스크바를 경유해 쿠바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출국한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빨리 돌아온 아노시케...KCC 훈련모드 이상무

로드, 코로나19 동요 없이 국내 휴식
아노시케도 훈련 일정 맞춰 팀 복귀



아노시케

KBL 리그 중단(4주) 선언 이후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한 각 구단은 9일부터 팀 훈련에 돌입했다. 울산 현대모비스, 서울 삼성 등 외국인선수들이 국내에 머물러 있던 팀들은 누수 없이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4위에 랭크돼 있는 전주 KCC도 마찬가지다. KCC 찰스 로드(35·200c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은 채 일주일간의 휴식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활했다. 또 다른 외국인선수 오데라 아노시케(29·203cm)는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KBL에

서 처음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이 불안감을 조성했을 법도 하지만, 아노시케는 9일 돌아와 팀에 합류했다. 출국한지 6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KCC 관계자는 11일 “애초부터 코로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었다. 멕시코리그를 마치고 바로 왔기 때문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집에 제대로 들르지도 못 했다더라. 그래서 잠시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아노시케는 자신이 말한 대로 잠시 집에 들러 휴식을 취한 뒤 바로 팀에 복귀했다. 전장진 감독(57)은 “팀 훈련 스케줄에 딱

맞춰서 복귀했다. 그 덕분에 선수 전원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정창영(32)만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된 리그 재개일(29)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KCC는 여유를 가지고 훈련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 감독은 “리그 중단 기간이 긴데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위축돼서 훈련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몸을 푸는 정도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마냥 훈련만 하면 지루하니까 다음주부터 대학팀들과 연습경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인도네시아 후끈 달군 ‘격투 오디션·맛짱의 신’

인니 최고 스타 코르부지에도 참여
인니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도 응원



로드FC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맛짱의 신’ 결승전을 성공적으로 촬영했다.

로드FC와 ‘맛짱의 신’ 제작진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해 인도네시아판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과 결승전 촬영을 진행했다. 로드FC 김대환 대표, 정문홍 전 대표, 블루문펀드 김진수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옥석을 골랐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수백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고, 그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50명이 절대고수와 예선전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스타인 ‘더 락’ 데디 코르부지에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현장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졌다.

코르부지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615만 명, 유튜브 구독자 760만 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스타다. 그는 촬영을 마친 후 “로드FC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환영한다. 인도네시아 선수가 아시아 최고의 단체인 로드FC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기 바란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깜짝 스타의 방문도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신태용 감독(50)이 현장을 찾았다. 신 감독은 도전자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운동선수로서 살아가는 노하우, 조언 등을 통해 격려했다.

이번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으로 로드FC는 일본,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진출에도 성공했다. 향후 블루문펀드와 함께 동남아시아 사업 확장도 기획해 넘버시리즈 개최도 구상하고 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축구대표팀 감독(오른쪽에서 2번째)이 로드FC 인도네시아 격투 오디션 현장을 찾아 축하해주고 있다. 사진제공 | 로드FC

로드 했다. 그러나 블루문펀드 김 대표님 덕분에 현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스타인 코르부지에도 신 감독님이 현장을 방문해 프로그램 제작에 큰

도움을 줬다. 참가자들의 열정과 실력도 좋아 프로그램이 재밌게 나올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 제작을 시작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